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품격 있는 사람들의 책꽂이에는 문짜이 있다. 아마 먼지가 쌓일까봐 문짜이를 달아놓기도 했겠다. 설마 겸연쩍고 부끄러운 책이 있어서 문짜이를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도 한때 문짜이 있는 책꽂이가 있었다. 품격 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 문짜이가 있으니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가지고 있는 책을 찾는 데 한참이 걸렸다.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겠지! 문짜이를 뗐다. 나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책은 누구기도 하고, 너털거린 추억의 책은 버리기도 했다.

책과 소통을 막은 문짜이! 문짜이만 뗐는데도 글이 더 가까워졌다. 아파트 평수가 조금 넓어져서 두세 발짝 더 걸을 수도 있다. 더 넓은 집으로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두세 발짝 때문에 흐뭇해졌다. 텅으로, 글은 읽어서 머릿속에 쌓아야 한다는 걸 문짜이를 떼고서야 뒤늦게 알았다.

한때 예쁜 그릇을 자주 샀다. 그릇이 예뻐면 음식이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우아하지 않은 삶이라 먹을 때라도 우아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문짜이 달린 싱크대 찬장에 갇힌 그릇들은 막상 쓰려고 하면 그 예쁨을 찾

잘 보이는 곳에 뒤야지

기 어려웠다. 음식은 좋고 있는데 그릇을 못 찾아 볼을 꺼야 할 때도 있었다. 음식의 맛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삶의 기회처럼! 급히 찾던 우아한 그릇이 깨지기도 했다. 쓰던 그릇을 자주 쓰니 우아함은 문짜이 뒤에 갇히고 말았다. 문짜이를 떼니 비로소 예쁨이 보였다.

더는 우아할 틈이 없어서 우아한 그릇을 나누기도 하고, 더는 우아하지 않아도 되어서 금이 간 그릇은 버렸다. 딱 필요한 그릇만 남았다. 넓어진 공간에는 추억들을 쌓았다. 텅으로, 음식은 우아를 따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건강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머리가 나쁘니까 읽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적는다. 적으면 글의 흐름이 잡힌다. 내 마음은 못 잡는데 글이라도 잡아서 다행이다. 행복한 만남도 적는다. 적어보면 만남의 주제가 뚜렷해지고, 상대가 어떤 일의 고수인 줄을 안다.

메모는 독서를 부듯하게 하고, 만남을 알차게 만든다. 그런데 적어 놓은 것을 어디에 뒀는지 모를 때 많다. 머리가 나쁜 것이 틀림없다. 요즘은 그날 적은 것은 잡자리에 들기 전에 분류해서 옮겨 적는다. 다음에 찾기가 쉽다. 어디에 옮겨 적었는지 모를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

아무리 정보가 많더라도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따로 있다.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니, 내 배는 퉁 튀어나와 통통하지만 컴퓨터는 훌쩍해졌다. 어지럽던 머리로 가벼워졌다. 쌓아서 집만 되었던 정보를 비우니, 그 틈새에 즐거움과 희망이 채워진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고, 불끈거리는 새 힘도 얻는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웃는 사람 곁에서는 웃게 되고, 감동 잘하는 사람 곁에서는 감동을 자주 한다.

만나고 돌아섰는데도 좋은 기분이 오래 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밝음에 나도 밝아져서 주변까지 밝아진다. 그의 친절이 떠올라 웃음 지으며 너그러움을 얻는다. 그의 침묵에서 존중을 배우고 나와 말을 즐긴다. 그의 감탄에 기꺼이 보답하려고 오늘을 가꾸며 애쓴다.

좋은 사람에게 몰드니 내 삶이 좋아진다. 행복한 사람 곁에서 얻은 행복으로 순간순간 행복해진다. 아무리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잊힌다.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고,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겠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니까.

누가 좋은 사람일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까? 나를 슬기롭게 가르쳐주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다.

잘 보이는 곳에 뒤야겠다. 읽어야 할 책은 눈에 띄게 두고, 쓸 그릇은 그 제자리에 놔둬야겠다. 메모는 주머니에 뒤셔 자주 보다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남은 언제나 반갑게, 행복한 사람은 일부러라도 만나자고 해야겠다.

기고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늑음이 짙어지는 유월 호국보훈의 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6·25전쟁의 참혹한 아픔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호국영웅들이 있었다. 포위기의 순간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소고한 용기를 보여준 분들이 있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삶,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정신과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올해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국민참여 행사로, 지난 4일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육군 교육사령부와 주한 미8군 군악대가 함께 '기억의 울림, 감사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한미연합음악회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가 이어가는 호국보훈

인 'TWO-GETHER 보훈호모닉스' 공연이 있었다.

이번 음악회는 헌정 공연과 우리고장 보훈영웅 숭모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6일 현충일에는 گیا 챔피언스필드에서 국가유공자와 시민 2만5000여명이 함께하는 'TOP 히트! 기타타이거즈' 행사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시구·시타·시포 행사와 전광판 홍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시민들이 일상 속 스포츠 문화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광주 동구 지역축제 '권자일' 행사와 연계한 보훈 뮤지컬 갈라쇼를 통해 독립과 호국의 이야기를 보다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풀어낸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를 준비했다.

10일에는 광주 본초초등학교와 함께 전교생이 참여하는 '보보 히어로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명랑운동회존, 체험존, 숭모 공연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명랑운동회와 숭모 공연존 등 아이들이 직접 뛰고 즐기며 보훈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보훈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나라사랑 새책 영웅'도 운영한다. 국민에게 바로알기, 나만의 영웅 배지 만들기 등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일상 속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학생들이 6·25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노후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드리는 '반딧불 드림하우스' 봉사활동과 네일아트, 염색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매직컬' 봉사활동도 운영한다.

그리고 한국어어촌공사와 함께 김장김치 나눔행사, 조선이공대 학생들의 '재능기부 에(愛) 보훈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이처럼 국민과 미래세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는 오늘날 호국보훈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인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에서 보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과거의 다소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호국보훈'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행복한 일상과 연결되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며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과 청소년의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한 감사가 더해질 때 보훈은 특정 세대만의 기억이 아닌 모두의 일상 속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가 보훈의 의미를 깊이 공감하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 본다.

독자투고

화물차 과속 예방이 생명 지킨다

고속도로를 주로 다니는 화물차는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의 과속과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속이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배속시간 압박이나 운행 횟수 증가 등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화물차 운전자는 단순히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운송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운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안전 중심의 운송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 양행순찰차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한 집중 단속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작은 안전수칙 실천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임승환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사설

이제는 합심해 통합특별시 큰 그림 그릴때

정확히 1년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4일 0시 5분 현재 개표 상황은 16개 시·도지사 선거중 민주당이 14개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MBC 등 공중파 3사 방송들은 출구조사를 통해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경합 4곳을 예측했고, JTBC 예측조사에서는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1곳, 경합 5곳을 예측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들은 윤 전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남달랐다.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된지 40년 만에 하나가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장과 통합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투표열기는 뜨거웠다.

전남은 65.7%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61%)를 웃돌았다. 광주는 54.3%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였지만 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37.7%) 보다는 무려 16.7% 증가했다. 그만큼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당면 과제인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물론 주정사 소재지 문제, 광주군공항 이전, 전남권 국립대의 설립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박빙 선거구에서 표출된 후보 간 고소·고발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정치권과 행정기관, 그리고 시·군 등 통합특별시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미완성 상태인 통합특별시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때다.

전남 생활인구 지역 특화모델 성공 기대

전남도가 생활인구 늘리기로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체류·관계·재방문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일정 요건의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다시말해 단순 방문객이 아닌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시 찾게 만드는 지역 활력의 핵심 축으로 도입된 것이다.

전남도는 지역 특화형 생활인구 모델 발굴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먼저 목포시의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Run Trip)'이 뽑혔다.

목포시는 5월 20일 현재 인구 19만9984명으로 1980년대 이후 무려 40여 년 만에 처음 '인구 20만명선'이 붐볐다.

2000년 25만275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21만4156명, 2024년 20만9890명, 2025년 20만2003명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이마저도 무너진 것이다.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여건과 경제상황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못한 무안군과 기본소득 20만원이 지급되는 신안군으로 대거 이동한 메타 고령화, 출산 감소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생활인구 늘리기가 당면 지상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또 귀농·귀촌 체류와 지역정착을 연계한 단계별 프로그램인 구래군의 '도시민 유입부터 정착까지 귀농귀촌 4-STEP 리빙스테이'와 지역체험과 주민 교류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모델을 추진하는 강진군의 '강진품에(愛) 살아볼래(來)'도 여기에 선정됐다. 가족 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관광·소비 활성화를 꾀하는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생활인구 증대사업'과 SNS 기반 콘텐츠 확산을 통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진도군의 '일단 한번 진도나가기!'(1박 2일 진도 패키지)'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들이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체류 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재방문과 정주 전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신설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시진부 370-7050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취재수첩

당선인들에 바란다

이현규

정치부 부장



다. 광주와 전남의 이해가 맞물리고 때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초대 시장의 리더십은 통합의 명분을 행정의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광주에는 광주의 절박함이 있고, 전남에는 전남의 사정이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가 배려 없는 균형은 오래가지 어렵다. 민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성장 비전이 특정 지역의 성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행정 조직과 예산, 핵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김대중 통합교육감 당선인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광주와 전남의 교육 여건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도시 학교의 과밀과 농어촌 학교의 소멸 위기, 지역 간 학력 격차, 교육재정 배분, 미래교육 기반 구축까지 통합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복잡하다. 통합교육은 단순한 조직 합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고르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어야 한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변화의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했다. 이제 답할 차례는 당선인들이다. 통합의 이름에 걸맞은 균형, 미래를 감당할 실행력, 주민 삶을 바꾸는 행정으로 표의 무게를 증명해야 한다.